

G2무역전쟁에 터키발 쇼크까지… 韓경제 ‘풍전등화’

(美·中)

기업투자 예상 2.9%→1.2% 낮춰
설비투자 전망 3.3%→1.5% 하향

신흥 27國 잠재취약국 안전 '4위'
대외건전성 '양호 국가'로 분류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21세기판 아편전쟁'을 연상케 한다. 아편전쟁도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됐다. 무역 결계 수단인 은을 원했고 1800년대 수차례 공황을 겪으며 더 넓은 시장이 필요했던 영국은 비난을 무릅쓰고 전쟁을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역시 1929년 대공황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시발점이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10일 흑해 연안에 있는 자신의 고향 귀네야수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터키는 올초 대비 68%나 급락한 터키 리라화와 관련해 곧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터키 리라화 급락에 대한 우려로 10일 유로화 역시 13개월 래 최저로 떨어졌다. /AP 뉴스

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추가 맞대응을 하면 최대 총 5000억달러 어치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미국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감안해볼 때 무역전쟁은 중국의 경제적 존엄성을 무너뜨려, 사실상 중국을 (미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중국은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비화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8%(홍콩 포함 시 31.6%)로 가장 높은 국가고, 미국은 11.9%로 중국 다음으로 높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이면 한국의 피해액은 367억 달러(약 4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G2' (미국·중국) 양국이 내뿜는 아편 연기에 한국경제가 좌불 안석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빅 플레이어'가 아니라 중간에 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해 대만, 헝가리, 체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등을 꼽았다. 여기에 터키가 만성적인 금융위기에 빠져들면서 세계적인 불안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를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본다. 유독 대외 경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윈더뎀털(기초체력)'이 관철이라도 부도날 수 있다는 경험을 1997년 외환위기 때 했다. 다만 시장의 우려에도 신흥국 중 잠재취약국(27개국 중 24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안팎으로 진퇴양난

미국과 중국의 '말싸움(rhetorical battle)'이 전쟁 수준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자문위원은 "중국은 자유무역을 약용하는 주제로 미국은 중국이 태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계속 압박할 의향이 있으며, 중국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

(주요 신흥국의 취약성 순위)

구분	소버린 리스크	대외취약성			잠재리스크					잠재 취약국 순위
	CDS 프리미엄	경상수지 (% of GDP)	민간 외환수급자립도 (% of GDP)	물가변 (중위치기준)	재정수지 (% of GDP)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 of Reserve)	외국인증권투자비중 (% of GDP)	대중무역 (% of GDP)	국제유가 (Net Oil Export (% of GDP)	
아르헨티나	1	3	21	1	5	4	16	15	15	4
브라질	6	13	10	11	3	20	14	5	16	7
칠레	23	10	15	13	13	9	6	1	4	12
콜롬비아	12	5	9	8	10	16	13	14	20	8
멕시코	11	9	8	4	22	15	4	18	19	11
페루	18	11	7	16	11	21	11	2	11	13
중국	20	18	18	19	9	12	21	x	9	22
인도	14	7	17	5	4	18	20	16	5	14
인니	10	8	12	12	14	11	15	11	13	9
한국	26	25	20	14	27	14	3	3	2	24
말련	15	21	16	x	12	5	2	9	17	16
파키스탄	2	4	13	17	6	2	23	6	x	3
필리핀	19	14	14	3	24	19	12	7	10	18
대만	x	27	x	x	17	x	x	x	x	27
태국	24	26	11	20	23	17	7	10	1	23
베트남	8	23	x	6	7	x	x	4	18	10
체코	25	16	2	7	26	6	9	24	14	19
이집트	4	1	4	x	1	13	19	21	x	1
그리스	3	12	1	18	25	1	10	25	x	6
헝가리	13	22	5	9	16	8	5	23	7	15
폴란드	22	15	3	15	19	10	8	22	6	17
카타르	16	17	x	x	20	x	x	17	8	20
러시아	9	19	19	21	21	22	18	13	21	25
사우디	17	20	23	x	2	x	22	12	x	21
남아공	7	6	22	10	8	7	1	8	3	5
터키	5	2	6	2	15	3	17	20	12	2
UAE	21	24	x	x	18	x	x	19	x	26

주: 숫자가 낮을수록 취약국, 가중치는 소버린리스크 및 대외취약성에 2.0를, 나머지에 1.0를 부여 /자료= KOFI

→터키발 신흥국 리스크도 불안울 부추긴다. 지난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터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두배 높인다고 하자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14% 급락했다. 13일 오전 아시아 거래에서도 10% 가까이 떨어졌다. 리라/달러 환

율은 달러당 7.24리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은행의 터키 익스포저는 17억달러로 0.8%에 불과하다. 상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 분석이다. 다만 해외 투자자금이탈 등이 있다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IBK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G2분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외화부채의 상환 부담이 큰 신흥국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려했다.

집안도 문제다.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기업투자가 뚝 떨어졌다. 올해 2.9% 늘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최근 1.2%로 대폭 낮췄다. 정부 역시 설비 투자 전망치를 3.3%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 투자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각각 30만명, 32만명으로 잡았다가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8만

명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고용 상황이 예년과 같은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최근의 고용 상황은 일부 업종이 부진한 영향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산가능인구가 6만1000명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3.1% 성장률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한국 경제가 불과 1년 만에 2%대로 다시 추락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각각 7월 12일과 17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춰잡았다. 민간 연구기관 등이 줄기차게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지적해도 낙관론을 펼쳤던 이들이 사실상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음을 인정했.

◆ 韓경제, 잠재취약국 순위 24위로 차별화

한국경제가 버틸 여력이 있을까. 국제금융센터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분류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 신흥 27개국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잠재취약국 순위 평가에서 24위를 기록했다. 대만(27위), UAE(26위), 러시아(25위)에 이어 4번째로 안전하다는 평가다.

이집트(1위), 터키(2위), 파키스탄(3위), 아르헨티나(4위), 남아공(5위) 등이 취약국 '톱5'에 꼽혔다.

대외 취약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한국은, 태국,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8억8000만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3차 남북정상회담 내달 '평양'서 열린다

고위급회담서 공동보도문에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장소는 평양으로 정해졌지만 시기는 '9월안'으로 했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정상회담 관련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이 궁금해야 취재할 맛이 있지"라며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 말 안했다. 날짜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 위원장은 "9월 초·중·하순 중 언제냐"는 질문에 "9월 안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이 회담 일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9월 안에 진행된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거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등 말했다.

리 위원장은 '오늘 회담이 잘 된 것이냐'는 질문에 "네. 잘 됐다"고 답했다.

회담에 앞서 남북은 회담의 언론 공개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회담 때마다 언론에 공개 하자고 주장했지만, 남측이 반대해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리 위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이라는 게 여론을 조성하는 근본 바탕이고 그들이 어떻게 선도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와전될 수 있다"면서 회담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서

로 간에 툭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면 고려할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기자들, 카메라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리 단장님보다 많이 못 하다"고 회담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리 위원장은 "당국자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태도가 달라지면 하는 일도 달라진다"면서 "성격과 말주변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호상 견해를 충분히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가는 중대사"라면서 북측 기자들에게만이라도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고 "중간이라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런(공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韓, 중국 상품수출 전년비 9.3% 줄어

韓銀, 수출감소 원인 분석 보고서

투자·제조업 상품 소비선호 줄어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의 투자와 제조업 상품에 대한 소비선호가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비스 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감소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14.7% 줄어 들었다.

한국의 총 상품수출 대비 중국 수출 비중은 1990년 이후 급속히 상승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25% 수준에서 정체된 뒤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최근 한국과 중국 간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감소의 패턴과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분해분석 및 일반균형모형분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회계분해분석은 우리나라 총 수출 대비 중국 수출 비중 변화를 '산업내 효과(산업 내 효과는 각 산업별 생산대비 대 중국 수출 비중 감소)'와 '산업간 효과(대 중국 수

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생산비중 감소)'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산업 내 효과는 1990년~2009년 약 20년간 8.9%포인트 확대됐으나 2010년 이후 0.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산업 간 효과는 1990~2009년 중 0.6%포인트 감소했고, 2010년 이후 1.1%포인트 상승으로 전 기간에 걸쳐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반균형모형분석에서는 대중국 수출 감소는 중국 내 저축률(투자) 감소 및 제조업 상품에 대한 소비선호 감소 충격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저축률은 2013~2016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했다. 이에 중국 내 자본재, 자본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을 감소시켜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소비선호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등 비제조업 중심으로 옮겨가는 점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는 세계교역 둔화 요인보다 중국의 투자 감소, 제조업 상품에 대한 소비선호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서비스 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9@